

마태복음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

성경: 마 1:1, 16:16, 4:16, 9:12, 15-17, 36, 38, 15:26-27, 28:18-19

I.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자 아브라함의 아들이시다—마 1:1.

- A.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왕국을 물려받으시고(삼하 7:12하, 13하, 렘 23:5, 눅 1:32-33), 지혜를 가지고 지혜의 말씀을 하시며(마 12:42),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는(삼하 7:13상) 그리스도의 예표이다.
- B.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모든 민족에게 축복을 가져오셨고(창 22:18, 갈 3:16, 14),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 죽음에 이르시고 부활하셨으며(창 22:1-12, 히 11:17, 19) 신부를 얻으실(창 24:67, 요 3:29, 계 19:7), 약속된 분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.

II.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왕이시다—마 2:1-2, 21:5.

- A.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왕, 곧 메시아이심을 증명한다—마 1:1, 17, 2:1-2, 27:11, 37.
- B. 하늘에 속한 왕은 거만함으로 화려하게 오시지 않고 부드러움과 겸손함으로 온유하게 오셨다—마 21:5.

III.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,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—마 16:16.

- A. ‘그리스도’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을 가리키며,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시는 주님의 위임을 말한다—마 16:21, 27.
- B. ‘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’은 그분의 위격을 말하고, 이 위격은 삼일 하나님의 충만한 표현을 위해 아버지의 체현이 되시고 그 영으로 완결되시는 것이다—요 14:10-11상, 고전 15:45하.

IV.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시다—마 8:20, 11:19, 13:37, 16:13.

- A.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 땅에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뛰어나게 하시는 사람이시다—마 9:6, 12:8, 13:41, 16:27-28.
- B. 천국이 세워지도록 주 예수님은 승리의 사람, 곧 사탄을 패배시키고 어떤 곤경이나 반대나 공격도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서 계셨다—마 4:4, 12:40, 26:64.

V. 그리스도는 침례 주는 분이시다—마 3:11.

- A. 주님의 성령 침례는 그분의 구속에 근거한 것으로서, 천국을 개시했고 그분의 믿는 이들을 천국 안으로 이끌었다—마 3:12상.
- B. 주님의 불 침례는 그분의 심판에 근거한 것으로서,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 못에 넣으며 천국을 종결할 것이다—마 3:12하.

VI. 그리스도는 죽음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생명의 빛이시다—마 4:12-16.

- A. 천국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은 땅에 속한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빛으로 시작했다.
- B. 주 예수님은 천국을 세우시기 위해 큰 빛이신 그분 자신께서 제자들을 매혹해 이끌었다.

VII. 그리스도는 의사와 신랑이시다—마 9:9-15.

- A. 그분은 우리를 천국의 시민으로 재조성하시기 위해, 우리를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의사로 오셨다—마 9:9-13.
- B.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사는 누림을 갖기 위해 신랑이신 그분을 감상해야 한다—마 9:14-15.

VIII. 그리스도는 새 옷을 만들기 위한 생베 조각이시다—마 9:16, 눅 5:36.

- A. 육체가 되신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그분은 새 옷을 만들기 위한 생베 조각이었다.
- B.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의롭다 함을 얻고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,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서 우리를 덮는 새 옷으로 만들어지셨다—마 15:22, 갈 3:27, 고전 1:30.

IX. 개인적인 그리스도는 새 포도주이시고, 단체적인 그리스도는 새 가족 부대이시다—마 9:17.

- A. 새 포도주는 활력으로 가득하여 기운을 북돋우고 우리를 열광하게 하며 만족시키는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.
- B. 새 가족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은 외적인 용기(容器)인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상징한다—고전 12:12.

X. 그리스도는 목자이시다—마 9:36.

- A.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‘시달리며’는 양이 잔인한 목자에게 가족이 벗겨져 고통당하는 것을 가리키며, ‘내버려지는’ 것은 사악한 목자가 양을 버림으로써 그 양이 곤란한 상태에 빠져 집도 없이 이곳저곳으로 방황하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.
- B. 주 예수님은 그분의 천국을 세우기 위한 그분의 사역에서 목자로서 사역하셨다—마 9:36.

XI. 그리스도는 추수의 주님이시다—마 9:37-38.

- A. 추수의 주님, 곧 수확물을 소유하시는 주님으로서 그리스도는 자라고 번성할 수 있는 생명의 속한 것들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신다—마 9:38.
- B. 우리가 추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본다면,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분께 간청할 것이다—마 9:37-38.

XII.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친구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시다—마 11:19.

- A. 죄인들의 친구이신 그리스도는 그들의 문제를 동정하시고 그들의 슬픔을 함께 느끼신다—마 11:19상.
- B.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지혜로 하신 것인데, 그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었다. 이 지혜는 그분의 지혜로운 일들로 말미암아 그 진실함이 입증되었다—마 11:19하, 고전 1:24, 30.

XIII. 그리스도는 안식을 주는 분이시다—마 11:28-30.

- A. 주님의 명을 메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에 제한받는 것이다—마 11:29, 요 4:34, 5:30, 6:38.
- B.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으로 만족하셨기 때문에, 항상 그분의 마음에 안식이 있으셨다. 이제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에게서 배우라고 요구하신다—마 11:28-30.

XIV.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님이시다—마 12:8.

- A. 그분은 안식일의 주님으로서 안식일에 관한 규정들을 바꾸실 권리가 있으셨다.

B. 그분은 모든 의식과 규정 위에 계셨다. 그분은 무엇이든지 기뻐하시는 것을 안식일에도 하실 수 있으셨고, 그분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 자신에 의해 의롭게 여겨졌다.

XV. 그리스도는 성전보다 더 큰 분이시다—마 12:6.

- A. 마태복음 12장 6절에는 예표를 이루는 전환, 곧 성전에서 성전보다 더 큰 분이신 한 사람으로의 전환이 있다.
- B.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,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성전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은 죄가 아니었다.

XVI. 그리스도는 더 큰 요나이시다—마 12:39-41, 16:4.

- A. 요나는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—마 12:39-41.
- B. 악하고 음란한 유대의 종교적인 세대에게, 주 예수님은 가장 큰 표적, 곧 죽고 부활하시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행하려 하시지 않았다. 이것은 그들이 이 표적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—마 16:4.

XVII. 그리스도는 더 큰 솔로몬이시다—마 12:42.

- A. 솔로몬은 교회를 건축하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—왕상 6:2, 고전 3:16-17, 엡 2:21.
- B. 영적인 의미에 따르면 더 큰 요나이신 그리스도가 더 큰 솔로몬이신 그리스도보다 먼저 나오신다. 왜냐하면 그분께서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셔야 했기 때문이다—마 16:18, 21.

XVIII. 그리스도는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찾은 분이시고 좋은 진주를 찾으시는 상인이시다—마 13:44-46.

- A. 그리스도는 천국을 발견하셨고, 기쁨으로 십자가로 가셔서 그분께서 가지신 모든 소유를 파시어 왕국을 위해 밭을 사셨는데, 그것은 창조되었으나 잃어버린 땅을 구속하신 것이다—마 13:44.
- B. 그리스도는 그분의 왕국을 위해 교회를 찾고 계셨으며, 십자가로 가셔서 그분께서 가지신 모든 소유를 다 파시어 왕국을 위해 교회를 사셨다—마 13:45-46.

XIX. 그리스도는 떡과 상 아래의 부스러기이시다—마 15:21-38.

- A. 하나님의 경륜은 외적인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, 그리스도께서 음식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문제이다—마 15:26, 34, 36.
- B. 우리는 떡이신 그리스도, 심지어 상 아래의 부스러기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,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섭취해야 한다—마 15:27.

XX. 인성 안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진 부활하신 분이시다—마 28:18-19.

- A.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, 사람의 아들과 하늘에 속한 왕으로서 모든 권위를 부활하신 후에 받으셨다—마 28:18.
- B. 마태복음은 왕국에 관한 것이고 왕국에는 권위가 필요하기 때문에,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민족들을 제자로 삼기 위한 권위의 문제이다—마 28:19.